

#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2021. 6. 2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6월 24일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김 근 익 위 원 대행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1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3차 임시 및 제12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1년도 제1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3차 임시 및 제12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09호 『한국예탁결제원 정관 일부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10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1.3.25일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신고를 완료하기 전까지 기존 가이드라인의 효력을 재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구독경제 소비자가 유료전환 일정을 쉽게 알게 하면서 해지·환불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경영 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

- (위원)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좋아 보임. 언론에서도 이 건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들었음. 특히,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는 대통령상도 표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이런 우수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

- (보고자) 지금 내부에서 저희과의 한두 가지 사업이 적극행

정으로 표창을 받았고, 전부처 경쟁에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 시상은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말씀하신 구독경제와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 적극 행정할 때 금융감독원도 협조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가 금융감독원의 협조와 노고를 잊지 않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또 앞으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독경제 서비스 관련하여 보도자료는 이미 한참 전에 올라와서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 올라온 것은 개정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인지?
- (보고자) 규개위 규제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일반 상거래업체인데 신용카드社·PG社 등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규제심사 받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보통 국민들은 신문에 보도되면 다음날 시행되는 것으로 하는데, 보도는 한참 전에 되었는데 시행령을 지금 고친다는 것이 의아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금감원과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12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법령에서 위임하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기준 등을 감독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13호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6.30.에 의결하고, '20.12.22.에 1회 연장한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명령을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6개월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14호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한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5호 『아셈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또는 미행사 내용 공시 의무를 위반한 아셈자산운용(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6호 『(주)대구은행 등 7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대구은행 등 7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심사하는 내용

○ (위원) 이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인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기존에 인가 나간 것이 28개, 그리고 3개 예비허가가 나고 이번에 33개가 신청이 들어왔고 7개 예비허가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자는 기존에 하던 것이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데 예비로 들어온 곳은, 예를 들어 (주)대구은행이면 (주)대구은행 조직이 그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인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가 궁금함.

- (보고자) 은행 내에 마이데이터 업을 하는 전담부서를 따로 둘 예정임. 그래서 일부 인력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위원) 한번 총괄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이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분석·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17호 『(주)아이지넷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아이지넷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심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18호 『동양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19호 『푸본현대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계약 전환 시 손해발생가능성 등의 확인 없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고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0호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5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간이 도래하는 사안에 대해 분리하여 상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1호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2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223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형금융회사 자체정상화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1.6.30. 시행예정으로,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기준과 자체정상화 계획의 작성기준·평가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

○ (위원) 그런데 시행령 시행일이 6월 30일인 것은 시행령이 이미 통과되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6.24일) 규정안 의결 후 6월 30일에 시행하면 준비시간 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보고자) 이미 입법예고가 다 되어 있었고 특별하게 준비하려는 것이 따로 없음. 이미 작년까지 계속 했던 것들이 근 거만 약간 보완되었기 때문에 크게 새롭게 해야되는 작업이 없어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코로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 하향조치를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5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인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앞선 제224호 안건(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규제유연화 방안」의 일환이며,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초과 허용기간을 연장(∼'21.6.30. → '21.7.1~9.30.)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3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 관리 권고 종료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난 1월 의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 관리 권고」의 적용기한이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설정했다고 하니까 전문가분들과 했을 텐데, 2021년 성장률을 보면 기본이 3.5%이고 심각이 0%로 3.5%가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022년은 기본이 2.5%인데 심각이 1.5%니까 1%가 차이로 2022년을 너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
- (보고자) 기본적으로 V자형 회복을 전제한 것임. 이것이 누적적으로 2020년 1분기 시점 현재가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가 조금 V자형으로 반등이 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설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성장률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점점 차원에서 질의한 것임.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
- (위원) 전반적인 성장률이 상향조정 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 (위원) 알겠음.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논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 ‘금년의 경우 은행(지주)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여기까지는 언론에서 비판하지 않을 것 같고,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여기까지도 사실이니까 문제없을 것 같음. 그런데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렇게 했을 때 기자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라고 금융위원회 위원들을 취재할 수 있을 텐데 담당국장님께서서는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준거가 되는 것이 코로나 19 이전의 정상적인 수준에서 배당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 준거로 해서 자율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스트레스테스트를 매년 꼭 해 오고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그동안에는 금감원 내부적인 목적으로만 해 오다가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준거로 해서 지난번에 배당 제한조치를 하게 된 것임. 이번에 종료를 할 때도 다시 새로운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판단하게 되었음.
- (위원) 미국은 매년 6월 이 시기에 스트레스테스트를 토대로 자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라는 것을 바탕으로 처음 했던 것이어서 시장에서 판단할 때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음. 스트레스테스트를 앞으로 정기화하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계속해서

시장과 공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이번에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top-down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하는데 bottom-up 방식으로 은행에도 시나리오를 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져옴.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그래서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감독당국과 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 기법이 더 발전하고 있음.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음.
- (위원) 우선 금융지주나 은행들이 자산건전성이 좋아지고 수익이 좋아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임. 그런데 오늘도 기사가 났 습니다만 신한은행 같이 점포정리를 해서 인원을 줄이는 부분이 많은데, 경영 측면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함. 수익이 안 나는 점포는 정리하고 수익이 나는 점포를 올리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익이 많이 나면 고용을 늘리는 것이 맞는데 수익이 나는데 고용을 줄이고, 아니면 점포정리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음. 수익이 난만큼 청년채용이라든지 신규채용을 해 주시면 그만큼 사회에 공헌한다고 생각함. 손실이 나는데 억지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이 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음. 두 번째, 점포정리를 했을 때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직훈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흔히 전직훈련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 부분에서 얼마나 전직훈련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음. 그

중에 하나가 마이데이터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이 신설해서 하는 것이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고 할 때, 만약 전직훈련을 해서 마이데이터로 옮겨서 그쪽에서 흡수한다면 전체적으로 고용 측면에서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세 번째,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 은행에서 그럴싸하게 Web발신 문자메시지가 왔음.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귀하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신청을 해 주시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은행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이었음. 워낙 광범위하게 문자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음. 그래서 사람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일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쪽으로 해서 만약 은행이름으로 그렇게 문자메시지가 나가면 그것을 보고 예방하고 통신사와 협의하는 정도는 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수익이 많이 나서 배당을 몇%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면서 배당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음. 제가 이것을 지시할 수는 없지만 보고자께서 아무래도 은행과 접촉면이 많으니까 의견교환도 하면서 우리 쪽의 생각을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임. 보고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면에서 제일 적합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의 감독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보고자) 말씀하신 내용 잘 전달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4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1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42분 폐회)

※ 폐회선언 후 최근 주요 제재안전에 대한 심의 진행경과와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간담하였음.

○ (위원) 아쉽게도, 내일이 ○위원님의 임기 마지막 날로, 오늘이 ○위원님의 마지막 금융위원회 참석임. 그동안 위원님 특유의 냉철하신 분석력과 예리하신 판단력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의 수많은 의사결정과정에 크게 기여하셨음. 특히, 최근에는 라임펀드 판매증권 3社, 삼성생명 제재안전 등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굵직한 안전들을 안전검토소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음. ○위원님 떠나시기 전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진행경과를 간단히 보고해주시고 위원님께 의견을 듣는 것이 다음 저희 심의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음.



- (위원) 금융위 사무처 소관부서에서 최근 주요 제재안전에 대해서 안전검토소위원회의 심의 진행경과 자료를 간략히 준비했음. 보고자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람.
- (보고자) 「최근 주요 제재안전에 대한 심의 진행경과」를 보고 드리겠음.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부실판매 증권3社 및 삼성생명 관련한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음. 그 이후로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먼저 라임펀드 판매증권3社 및 삼성생명 제재안전의 사실관계, 법리적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라임증권 3社의 경우는 증선위에서 3차례,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6차례 논의가 진행되었고, 삼성생명의 경우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5차례 논의를 진행한 상황임. 이 과정에서 의견진술 및 대질심의를 통해 제재대상자들의 진술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주력하고 있음.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한 법리해석 및 사실관계 적용에는 아직까지 다소 이견이 상존하고 있어서 쟁점이 좁혀지기까지는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관련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서 증선위 및 안전검토소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좁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정을 추진하고자 함. 다만, 내부통제기준 관련사항 등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 후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내실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음. 다음은 삼성생명 관련

된 사안임. 수차례 논의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쟁점이 좁혀진 상황인 반면 대주주 거래제한 등 아직 추가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도 일부 남아 있음. 삼성생명도 그간 여러 논의를 통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쟁점이 좁혀진 부분부터 상정하여 처리를 추진하겠음. 아울러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논의를 진행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음.

- (위원) 현재까지 안전검토소위원회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간략한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음.
- (위원) 작년에 밤늦게까지 제재심을 한 세 차례 이상하면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 증선위와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 정리한 내용대로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된 부분은 끊고 넘어가고, 그리고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을 좁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공감할 함. 삼성생명 부분은 앞부분과 조금 다른 주제인데, 물론 이것이 사실관계는 덜 복잡하지만 법리적으로 낯선 부분이 좀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속도를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
-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건과 두 번째 건의 차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음.

- (위원) 그동안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라임펀드 판매 3社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관련된 안전검토소위원회의 법리해석 부분을 살펴보고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함. 두 번째, 삼성생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 그간 진행했던 심의진행경과에 대해서는 보고자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더 덧붙일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2가지 안전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함. 첫 번째,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선례가 부분적으로 있었음. 그때는 저희가 독립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서는 유사 제재 안전들이 현재도 3건 이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안전들에 대한 종합적·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치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처리방향에 시금석이 될만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삼성생명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원은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된 법조항의 해석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음. 그리고 또 제재근거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잘 살펴야 함.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이번 제재안 심의를 하면서 사실상 금융회사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들을 알아주셨으면 함.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양측의 의견, 금감원 쪽과 금융회사 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 점이 있었음.  
이상 안전검토소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심도 있게 법리적으로 꼼꼼히 해 주셨는지 느낄 수 있었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기록했다가 앞으로 안전처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음.